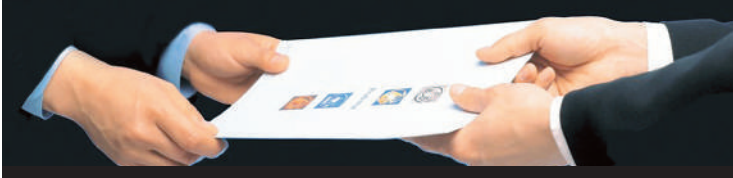


4» 리포트, 한번 가면 함흥차사?



5» 열악한 체육 인프라



2015학년도 2학기 최종등록 안내(졸업예정자)

기간 : 2015.9.16(수)~2015.9.21(월) 수납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
납부방법 : 1)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
3)은행 직접 방문 납부

취업률 50.9%, ‘절반 취업’ 고착화되나

진학률은 10% 밀돌아 … 취진차,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 취업에 대한 관심 적다”

대학알리미 8월공시 분석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우리학교 양 캠퍼스 취업대상자 4,590명 중 2,337명이 취업해 취업률 50.9%를, 졸업자 5,575명 중 552명이 진학해 진학률 9.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2015년 졸업생의 취업 현황’과 ‘2015년 졸업생의 진학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취업률인 50.6%보다 0.3%pt 증가했지만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2015 서울 주요 경쟁대학 취업률>과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성균관대(68.3%)와 격차가 17.4%pt나 벌어져 있어 소폭 오른 취업률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폐과가 되거나 졸업자 수가 적은 국제·경쟁대학과 의과대학, 동서의 과학과 등을 제외한 21개 단과대학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양 캠퍼스 통틀어 한의과대학이 8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음악대학은 9.7%로 가장 낮았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전자정보대학이 68.0%로 가장 높았고, 생명과학대학이 31.3%로 가장 낮았다.

성비로 분석한 우리학교 취업률은 남학생 55.1%, 여학생은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단과대학 중 법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 예술·디자인대학과 체육대학 등 4개 단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 남학생 취업률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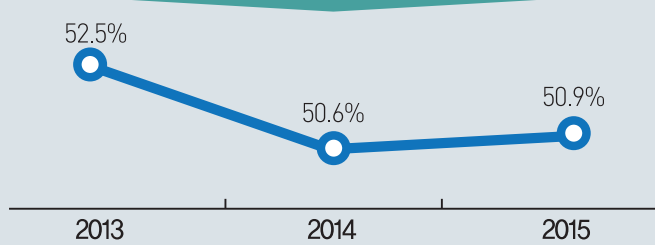
저조한 취업률의 원인으로 줄곧 언급되는 문제들은 예체능계열과 여학생의 졸업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낮은 취업률의 원인을 예체능계열과 여학생 졸업자 비율로 돌리는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지

난해까지 우리 신문에서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혀왔다. 프리랜서나 1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저조는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공통현상이라는 점과 여학생이 100%인 이대·숙대와 우리학교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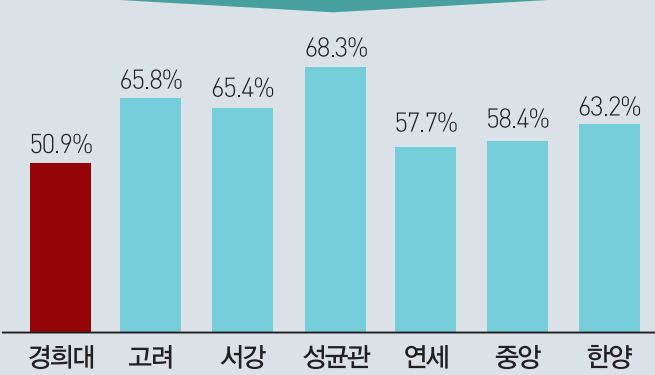
양 캠퍼스 취진차 모두 위와 같은 원인들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취업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꼽았다. 서울캠퍼스 취진처 한상백 팀장은 “다 학교에 비해 우리학교는 교수, 학생, 구성원 모두 취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며 “다 대학의 취업 지원부분이나 관련행사를 듣다보면 ‘취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제캠 취진처 정현향 계장 또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시스템도 쉽게 바뀔 수 있다”며 “요구가 많으면 점점 더 지원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풍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우리학교의 진학률 역시 지난해 10.8%에서 0.9%pt떨어진 9.9%다. 이는 서울 주요 경쟁대학들이 2~30%를 웃ود는데 반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약학대학이 31.3%로 가장 높고, 응용과학대학(28.1%)과 무용대학(25.0%)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간호과학대학으로 0.6%였으며, 호텔관광대학(1.8%), 정경대학(1.9%), 경영대학(1.9%) 등이 2% 미만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 단과대학의 진학률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진학률이 낮았다. 진학률만으로 학생들의 학구열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학률이 대학 교육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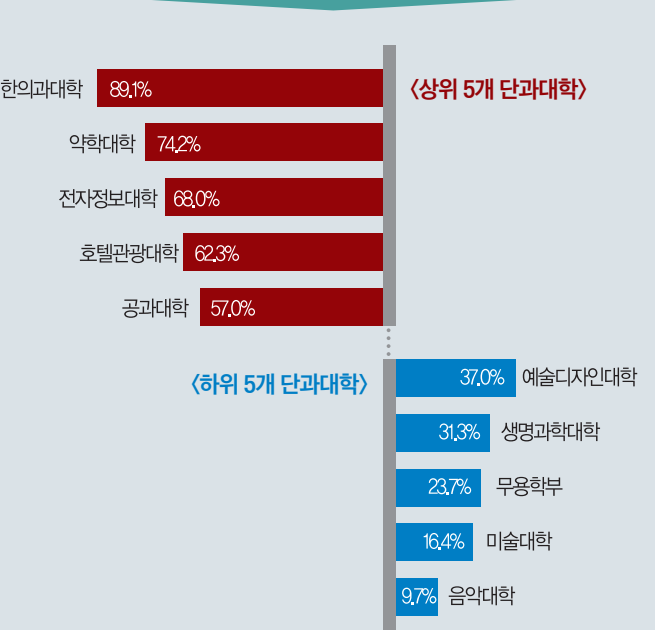
우리학교 3개년 취업률 추이



경쟁대학 취업률



단과대학별 취업률



Newsmaker

청년의 이야기 전하는 절망라디오
리포터 신소진 (정치외교학 2013)양



“우리 목소리로 우리 일을 말하고 싶다”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교육부의 ‘대학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대학생의 자살률이 60% 상승했다고 한다. 우울증과 학업, 진로문제 등의 이유로 세상을 등지는 대학생의 증가는 흔히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 세대가 얼마나 힘들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의 이야기를 기성세대의 입이 아닌 청년의 입으로 말하자는 ‘절망라디오’가 지난 8월 첫 방송을 시작했다. ‘절망 라디오’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신소진(정치외교학 2013)양을 만났다.

“우리들의 노력을 우리들의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 양은 “기성세대가 말하는 청년의 아픔은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싶었다”고 절망라디오의 설립 취지를 말했다. 절망라디오는 ‘안 망한 사람 나와라’, ‘참 망했어요’ 등의 표어로 대학생의 아픈 사연을 받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지난 달 22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절망라디오는 청년의 사연과 함께 흔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앙케트를 곁들여 소소한 재미를 제공한다. 일례로 ‘가장 많이 먹는 점심 메뉴’라거나 ‘10년 뒤 나의 직업’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청년의 일상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망한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만 올린 것이 아니다. 신 양은 “살던 원룸의 철거가 결정돼 점점 열악해지더니 결국에는 전기도 들어오

지 않아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이용하기도 했다는 사연이 기억에 남는다”며 “힘들고 고단한 이 시대 청년의 삶이 슬펐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달간 쉬며 여행을 다녀오니 밥 먹을 돈이 없어 점심을 굶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한 신 양은 “고작 한 달 알바를 하지 않았는데 밥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남에게 하기는 꺼리는 사람이 많다”며 “우리 또한 열심히 사는 학생에게 아픈 사연을 달라며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 “열마전 부스에서 앙케트를 진행하던 중 대학교에 탐방 온 고등학생 중 일부가 다가와 문과를 지원했다는 말을 했다”며 “그 상황에서 당당히 잘했다고 칭찬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절망라디오는 청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므로 많은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리포터들과 방송 관계자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신 양은 “부스가 보이면 가끔씩 와서 설문조사도 해 주시고, 공유하고 싶거나 털어 놓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양은 “지금 청년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한 노력을 우리들의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절망 라디오 듣기
www.podbbang.com/ch/9988

인류문명 핵심개념 〈사회계약 Social Contract〉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②

이기라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리는 왜 권력에 복종하는가? 우리는 왜 특정한 정치적 질서에 따라야 하는가? 사회계약은 한 사회에서 권력이나 위계, 또는 정치질서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동의와 약속으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사회를 이루면서 일정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위계적인 정치질서를 구성하는 가상의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

회계약론자로는 17세기 영국의 토머스 홉스와 존 로크,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를 꼽는다. 그들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다.

동의에서 나온 권력

개인은 왜 권력에 복종하나?

사회계약론자들의 주된 고민은 “어떻게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기초하여 정당한 정치적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종교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로부터 인간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출발점으로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자연상태는 모든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들을 강제하는 어떠한 권력이나 사회적 규범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평등한 개인으로 상정하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즉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어떠한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도 없다면, 권력과 지배구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자유로운 개인들로 하여금 정치권력

에 복종하도록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사회계약론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협약이라는 이론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협약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정치질서나 권력관계는 자연적이거나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결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왜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계약을 맺을까? 이 계약의 목적, 나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이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될까?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칼럼

먹방의 윤리학

최태섭 문화 ‘불평’가 >>7면

